

일 주 문



故여익구 거사 1주기 추모재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은 6월 6일 오전 10시 정각원 법당에서 여익구 거사 1주기 추모재를 개최한다.



태국SEM 임파워먼트 강연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5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태국 SEM으로부터 배우는 임파워먼트의 성공사례' 강연을 개최했다.



연꽃마을 제6회 호사랑마린톤대회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은 6월 2일 안성 파라밀요양원 일대에서 제6회 장애노인을 위한 전국호사랑마린톤을 개최한다. (031)671-3677



학업원만성취 성지순례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6월 13일 오대산 상원사 적멸보궁으로 학업원만성취 6월 성지순례를 거행한다. (02)3218-4800



제8회 이주민 문화축제
강화 전등사 주지 범우 스님은 6월 2일 오전 10시 30분 '아시아는 친구'를 주제로 제8회 이주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우리는 선우 6월 토요일 법석
조성택 우리는선우 이사장(고려대 철학과 교수)은 6월 1일 선우 6월 토요일 법석에서 '세계 지성인들이 불교에 매료된 까닭'을 주제로 강연한다.

윤이상평화재단 새 이사장에 영담 스님



재단법인 윤이상평화재단의 새 이사장에 부친 석왕사 주지 영담 스님이 선출됐다.

윤이상평화재단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제5대 임원으로 임기 2년의 이사장 영담 스님을 비롯해 부이사장에 기업인 이근식 씨, 상임이사에 시인 장용철 씨 등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영담 스님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와 부친 석왕사 주지, 6·15실천 남북 상임공동대표,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윤이상평화재단은 세계적 음악가인 윤이상 선생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5년 3월 18일 설립되었으며, 국제윤이상 작곡상, 남북음악교류, 윤이상 페스티벌 등 주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인사> 문화재청 인사 발령

정부는 5월 22일자로 문화재청 국장급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 △ 국립고궁박물관장 이귀영(李貴永)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소재구(蘇在龜)

“순국선열 억울함 풀어주고 싶었죠”

범패와작법무보존회장 능화 스님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날이다. 수많은 목숨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주검을 바쳤고 그 넋들은 살아있는 자의 애환으로 남아 있는지 모른다. 이런 영혼을 달래는 현충재를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가 있다. 바로 현충재는 범패와작법무보존회장 능화 스님(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스님은 올해도 6월 6일 인천 수봉산 현충탑에서 광장에서 현충재를 마련했다.

스님은 “인천 수봉산 정상에 세워진 현충탑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순국선열의 영령을 모신 성지다. 현충재는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영원히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현충재의 시작은 2002년 현충일이었다. 능화 스님과 범패와작법무보존회 회원들이 인천 수봉산 현충탑을 찾았을 때 흰 국화꽃 몇 송이만이 있을 뿐이었다. “회원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죠.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나마 예를 갖추고 범패와작법무의식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회원 모두는 내년 현충일에는 좀 더 짜임새 있게 격식을 갖춰 의식을 해보자는 의견을 내놓았고 그 다음해부터 ‘현충재’라는 이름을 만들어 올해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현충재가 맞지 않냐는 전화와 질문을 받기도 했다. 스님은 “제(祭)는



11년째 현충재 이어오고 있어

인천 수봉산 정상 현충탑서

매년 6월 6일 현충재 마련

유교식으로 제사를 올리는 것을 말하지만, 제(齋)는 불교적 의식으로 공양을 차별 없이 올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각종 제사음식은 물론, 범패음악의 장중하고 멋스러운과 작법무의 단아하고 정갈한 모습에 정성된 마음까지 공양하는 것이 현충재”라고 설명한다.

현충재는 매년 무형문화재 전승발표를 겸하기 때문에 보존회원 전 회원과 퓨전 국악단 구름과 피안사회복지관, 남구불교연협회, 제물포성당 주임신부 황운상 베드르,

국제성서박물관장 임봉대 목사와 불교재가 불자연합회,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의 참석하고 1000여명의 관람객이 함께한다.

현충재는 △제1부 여는 의식은 범패물 연주, 범고춤 등이 △제2부는 받드는 의식으로 참석한 내빈들의 헌화와 봉헌사 봉독, 헌다 △3부는 펼치는 의식으로 사방범고춤과 해탈무 도랑계 나비춤이 이어진다. △제4부는 회향의식으로 제사(금강경전)와 남북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금강산타령, 천수바라춤 등으로 구성된다.

능화 스님은 “현충재가 끝나면 어떤 이는 잠시 선경에 다녀온 느낌이었다 하고 또 어떤 이는 하늘도 감동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우국충절 선현들의 일체 업은 모두 소멸되고 오묘한 선근공덕으로 고통 없는 즐거움 가득한 곳 정도 극락세계에 왕생하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앞으로도 성심을 다해 현충재를 모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능화 스님은 인천시무형문화재 10-가호 범패와작법무 바라춤 예능보유자로 러시아국립극장, 일본국립극장, 미국 뉴욕카네기홀 공연, 명인명무전 출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개막초청공연 등을 가진 바 있다. 동국대학교원 철학박사, 동국대평생교육원 겸임교수로 재직중으로 있다. 2006 인천시 문화예술상 수상, 2010 종교인 대상수상(서울신문)을 수상했으며 (사)한국박물관협회 범패박물관 관장, 인천·제주 구양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정혜숙 기자

불자 배상문 골퍼, PGA 첫 승

5월 20일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에서

불자골퍼 배상문(27·캘리포니아) 씨가 5월 20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진출 2년 만에 첫 승을 거뒀다. 최경주, 양용은에 이은 한국인 세 번째의 쾌거다.

배상문 선수는 미국 텍사스주 어빙 포지즌스 TPC에서 열린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에서 최종합계 13언더파 267타로 킨 브래들리를 2타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2008·2009년 한국 상금왕에 올랐던 배상문 선수는 한국에서의 활동을 뒤로 하고 2011년 과함히 일본무대에 도전해 일본상금왕을 차지한 바 있다.

이후 미국무대에 도전한 끝에 2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다.

배 상문은 우승인터뷰에서 “꿈꿔 오던 일이 현실로 이뤄졌다.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배상문 선수는 독일산 불자로 2008년 12월에는 불교계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동행



2008년 아름다운 동행 홍보대사 어머니 해인사서 우승 기원 기도

(이사장 자승) 제1호 홍보대사에 위촉된 바 있다.

배상문 선수는 “명상이 집중력 향상에 도

움이 된다”며 “해외나가면 절에 가기 힘들기 때문에 외국 나가기 전 피곤하더라도 절을 찾는다. 산에 조용한데 가서 기도도 하고 스트레스트 줄이는 마음 수행을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배 상문의 불심은 직접 캐디백을 메고 배 상문을 뒷바라지 하는 어머니인 시욱희 씨(57)에게서 비롯됐다. 생후 5개월부터 홀어머니 아래 성장한 배상문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며 신심을 키웠다. 배상문 선수는 상금 등을 모아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 자비행을 실천해 왔다. 배상문 선수가 이 본격적으로 골퍼를 시작한 중학교 1학년부다 살던 집은 물론, 자동차와 반지까지 몽땅 팔아 뒷바라지에 나선 배상문의 어머니는 배 상문의 경기가 있을 때 마다 은사자 중앙암 등에서 기도정진을 하고 있다. 시 씨는 배상문 선수가 PGA 첫 승을 하는 순간 합천 해인사 흥제암에서 밤새 불공을 드리고 있었다. 노덕현 기자

인환 스님, 동국대에 1억원 쾌척



조계종 원로의원 인환 스님이 김희옥 총장에게 한국불교학 진흥기금으로 1억원을 전달하고 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동국대 원로교수인 정릉 경국사 한 주 인환 스님이 동국대에 1억원을 쾌척했다.

인환 스님은 5월 22일 김희옥 동국대 총장에게 한국불교학 진흥기금으로 써 달라며 1억원을 전달했다.

인환 스님은 이날 전달식에서 “김희옥 총장 부임 이후 동국대 인프라가 개선되고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학교 발전을 위해 모든 동국인이 힘을 모아 기치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신뢰받는 대학, 교육연구에 충실한 대학, 계속해서 발전하는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인환스님은 1931년 원산에서 출생해 1952년 부산 선암사에서 원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64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동국대 대학원과 일본 동경대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2년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1996년 정년퇴임까지 불교대학장, 불교문화연구원장, 정각원장 등을 역임하며 후학양성에 매진했다.

2011년부터 2년간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을 역임한 인환 스님은 재임 중 △21세기 통합대장경 아카이브 구축 △간화선 국제학술 대회 매년 개최 △한국불교학 진흥 연구인력 양성 사업 △한국불교학 진흥기금 모연사업 등에 힘을 쏟았다. 특히 한국 불교기록 유산 집성을 위해 전국 사찰 소재 자료 전송 조사 실시하고 북한 및 해외소재 자료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한국 불교학의 발전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왔다. 노덕현 기자

세계불교종단聯, 원효대사다례제



세계불교종단연합회(회장 현불)는 5월 19일 청주 충북불교회관에서 원효대사다례제를 봉행했다. 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혜강 등인)이 주관한 이날 다례제에는 400여 대승이 운집했다.

회장 현불 스님은 “원효 스님은 상주불법의 무위법을 깨달은 호국 승려로 화쟁사상(和諍思想)으로 민족화합의 새 장을 열었다”며 “다례제에서 우리도 같이 마음을 밝혀 만유를 감싸 안는 자비심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모두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Advertisement for Indek's Gongjinbo-won. Features a box of Gongjinbo-won capsules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health and vitality.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QR code.

Advertisement for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Promotes a service for health food prescriptions based on individual health conditions. Includes a list of qualifications,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 URL.